

4) 담수패류

섬진강수계인 주암면 광천리 일대는 유속이 빠르고 하상이 자갈로 덮여 있다. 환경부 『7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를 보면 물이 맑고 수온이 낮아 다슬기·참다슬기·염주다슬기 등이 우점종으로 출현하였고, 간디스토마의 중간숙주인 쇠우렁이도 많이 서식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송광면 복교리 일대는 자갈, 모래 채취의 흔적이 있어 재첩과 말조개가 채집되었을 뿐 다른 담수패류는 서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섬진강 수계에서 다슬기, 참다슬기, 구슬다슬기, 곱체다슬기, 염주다슬기, 주름다슬기, 줄주름다슬기, 논우렁이, 쇠우렁이, 물달팽이, 애기물달팽이, 민물담치, 두드럭조개, 곱체두드럭조개, 말조개, 도끼조개, 대칭이, 펄조개, 재첩 등이 채집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주암댐의 도수터널과 수도관에 민물담치가 부착·번무할 경우 수로의 폭이 좁아져 앞으로 민물담치의 발달과정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